



6월 1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6.4	5.28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74.05	1,320.46	↑ 4.06	↑ 24.48	785.17 '20/07/27	1,374.05 '21/06/04
인니	자카르타종합	6,065.17	5,848.62	↑ 3.70	↑ 1.44	4,816.34 '20/06/15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2,100.05	51,422.88	↑ 1.32	↑ 9.11	33,228.80 '20/06/15	52,232.43 '21/06/03
중국	상해종합	3,591.85	3,600.78	↓ -0.25	↑ 3.42	2,890.03 '20/06/15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07.65	2,393.49	↑ 0.59	↑ 3.36	1,852.54 '20/06/04	2,468.66 '21/02/19
홍콩	H	10,805.64	10,793.55	↑ 0.11	↑ 0.63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8,918.10	29,124.41	↓ -0.71	↑ 6.20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40.08	3,188.73	↑ 1.61	↑ 12.76	2,030.82 '20/06/15	3,249.30 '21/05/10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6.4	5.28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8	2.33	↓ -5.40	↓ -30.30	2.20 '21/01/15	3.60 '20/07/23
인도네시아	6.43	6.44	↓ -1.10	↑ 54.10	5.89 '20/12/30	7.27 '20/06/08
인도	6.03	6.00	↑ 2.50	↑ 16.40	5.76 '20/07/10	6.25 '21/03/10
중국	3.13	3.09	↑ 4.20	↓ -1.60	2.76 '20/06/12	3.36 '20/11/19
한국	2.17	2.14	↑ 3.00	↑ 44.50	1.28 '20/07/30	2.20 '21/06/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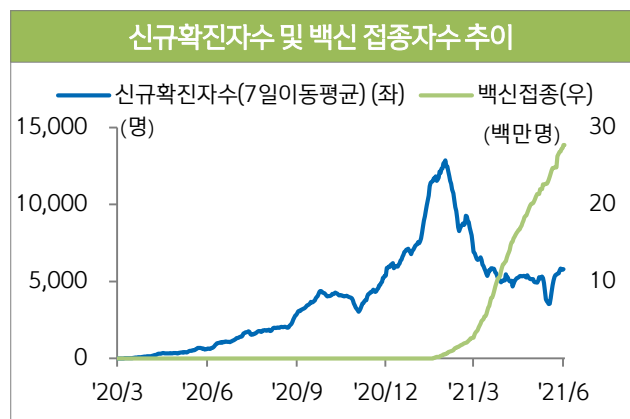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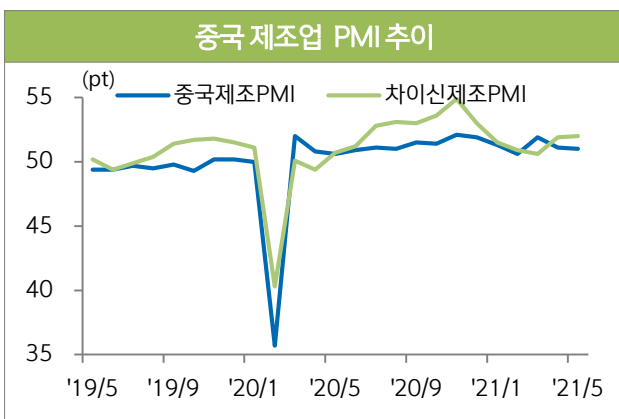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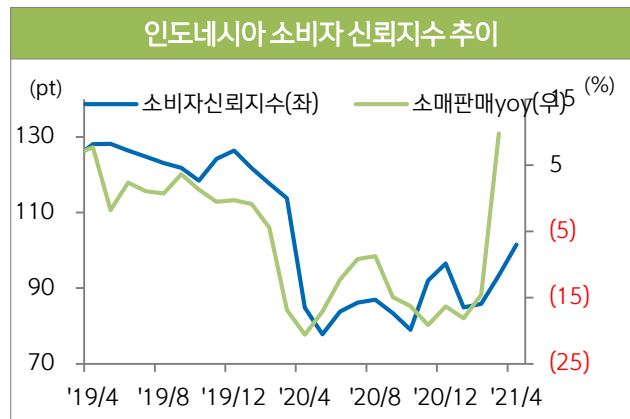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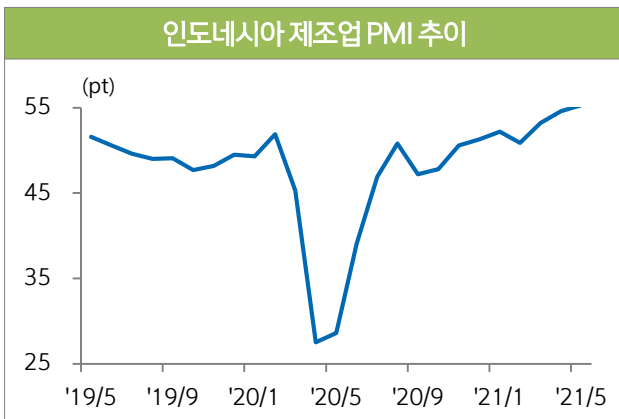
구분	6.4	5.28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38.00	23,039.00	↓ 0.00	↓ -0.26	22,970.00 '21/02/08	23,264.00 '20/06/04
달러-루피아 (IDR)	14,295.00	14,285.00	↑ 0.07	↑ 1.74	13,878.00 '20/06/05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3.00	72.44	↑ 0.78	↓ -0.10	72.33 '21/02/24	76.21 '20/06/16
달러-위안 (CNY)	6.40	6.37	↑ 0.42	↓ -2.02	6.37 '21/05/28	7.11 '20/06/04
달러-원 (KRW)	1,116.44	1,115.13	↑ 0.12	↑ 2.75	1,081.81 '20/12/04	1,219.03 '20/06/04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5월 제조업 PMI. 연휴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

- 5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PMI는 55.3pt를 기록하여 4월 54.6pt에서 다시 한 번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55.3pt는 아세안 지역 비교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동북아 3국의 제조업 PMI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50pt를 상회하면서 확장 흐름이 지속됨. 신규 수요, 출하 및 구매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확대 의향이 확인되었으며,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마단 기간 및 이돌 피트리 기간의 휴무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의 투자심리가 양호하게 유지되면서 2분기 민간 투자 부문의 GDP 성장률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도네시아 非석유 가스 부문의 주요 수출 지역인 중국의 제조업 PMI가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50을 넘는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인도네시아 수출 및 제조업 부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기준치인 100pt를 넘어서는 101.5pt를 기록한 이후에 확인된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를 기록하였음. 4월 소매판매증가율을 전년대비 9.79%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가 극성을 이루던 시기의 전면적인 통제 조치의 기저 효과와 함께 라마단 기간을 앞두고 일부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주었음.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연휴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임. **제한적 재개 조치 이후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빠른 조치를 통한 확산 억제 여부가 경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상황임**



주요 뉴스





인니, 두번째 세금 사면 준비. 첫번째 세금 사면의 성과 리뷰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6년에 이어 2번째 해외 은닉 자산 신고를 통한 세금 사면 정책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세수 확보를 위해 세수 저변을 높이고자 신고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첫번째 세금 사면 당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경제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빠른 개선을 위해 2016년에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새로운 세금 사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두번째 세금 사면 계획은 세금 회피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난 5월 19일에 경제 조정장관은 제 1983년 6호 세금 징수에 대한 일반 절차의 개정을 제안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고소득자(High-Net-Worth-Individual : HNWI) 세금을 높이는 등의 다른 조치들도 포함되서 발표되었음.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올초부터 논의를 시작한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이뤄진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에 서신을 보냈다고 말하였음.
- 아직까지는 두번째 세금 사면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만 있다면서 사업가들이 로비를 적극적으로 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의장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논의들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이행된다면, 세금 사면 조치가 추가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세금 사면 조치를 1번만이 아닌 여러 번 실시한 적이 있지만, 세수를 줄이는 영향은 있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음.
- 한편, 인도네시아 청년사업가 협회(Hipmi)는 이번 세금 사면 추가 실행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밝혔음. 협회의 금융 및 은행 부문장인 Ajib Hamdani는 세금 사면 정책을 지속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진행한 첫번째 세금 사면 정책은 세금 신고의 증진과 정부 세수 기반의 확대를 목표로 하기 위해 2016년 제 11호 법안으로 시행되었었음. 첫번째 세금 사면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산들을 해외에 빼돌려두었으며,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잠재적인 세수 기반을 놓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음. 당시 재무부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약 4,000조 루피아(2,80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였었음.

(뒷면 계속)

- 2016년에 세금 사면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 조정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투자를 위한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되며, 경제 성장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성명서를 냈었음. 해당 정책은 이후 2016년 7월에 발표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법인세 납부자들에게 2015년 12월까지 발생한 이전 년도들의 자산신고 누락 분에 대해서 세금 완화 정책을 9개월간 실시함.
-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첫번째 세금 사면 정책 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인도네시아 금융 시스템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았었음. 관계 당국은 세금 사면 정책에 참여하였지만 숨겨둔 자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200%까지 추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하였었고, 아예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까지도 부과하였음.
- 1차 세금 사면이 완료된 때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러 목표 수치들 가운데 몇 가지만 달성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2017년 국세청 보고서에서는 나와있음. 일단 4,000조 루피아라는 목표를 넘어서는 4,738조 루피아의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음. 그러나, 총 국내 환입 자산 규모는 147조 루피아에 그치면서, 당국이 목표로 하였던 1,000조 루피아에 못 미쳤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지 114조 루피아 상당의 환류 펀드를 조성하는데 그치면서 목표치인 165조 루피아에 미달하였으며, 해당 펀드에 참여한 납세자도 100만명에 못 미쳤음. 3천만명이 넘는 세금 납부자들이 납세번호(NPWP)를 해당 기간 동안에 만들게 된 것 정도는 성과임.
- 세금 사면 제도가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함.
- 재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대비 세금 납부 비율은 오히려 세금 사면 정책 이후에 감소하였음. 2015년 10.8%에 그치며 원래 국제 표준 수치보다 낮았는데, 2016년에는 10.36%, 2017년에는 9.98%로 줄어들었고,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2018년에서야 10.24%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2019년에는 다시 9.76%로 낮아졌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2020년에는 8.33%까지 줄어들었음.
- 세금 사면 정책이 납세율에 미친 영향 역시도 불분명함.
- 2016년에는 60.78%이던 납세율이 2017년에는 72.64%로 크게 높아지긴 했지만, 이후에는 개선세가 거의 없었고, 계속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에 미달하였음. 해당 지표는 전체 납세 대상자의 숫자에서 연간 소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납세한 사람의 비율임.
-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율은 2017년에 72.65%, 2018년에 71%, 2019년에 73.06%에 그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목표하였던 75%, 80%, 85% 목표에 전부 못 미쳤음.
- 인도네시아 납세 분석 연구소(CITA)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2번째 세금 사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라면서, 첫번째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먼저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인도네시아 고용인협회(Apindo)의 세금 담당 위원회에서는 두번째 세금 사면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주진 못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너무 짧은 기간 만에 다시 집행해봐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모럴해저드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임. 오히려 두번째 세금 사면 정책을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세금 수입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지장이 될 것으로 보았음.
- 세금 사면 정책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통해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여서 성장을 통해 세금 납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Apindo는 권유하였음.

(출처 : Jakarta Post)



새로운 OSS 인허가 플랫폼이 한달 정도 지연될 예정



❖ 요약 및 시사점

기존에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 운영되던 OSS시스템을 새롭게 통과된 일자리 창출 법안에 근거하여 업데이트 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법안이 정리한 중앙 집중적인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OSS의 시행을 1달 늦추었음. 중소기업들의 사업번호와 납세번호를 발급 하는 등 등록 절차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련 문서 제출 및 허가 요청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발표를 연기할 계획임. 투자부 Bahlil Lahadalia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단일 제출 플랫폼(OSS Platform)을 당초 개시일자 6월 2일에서 7월로 미룰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해당 플랫폼은 허가 절차를 일관화하고, 여기에 최근 통과된 일자리 창출 법안의 내용을 적용하여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앙화되고 통합된 플랫폼으로써 OS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 지방 정부들이 가지고 있던 대기업/중소기업 들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 OSS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자를 늦춰야 한다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 장관과 경제 조정 장관이 주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음. 주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OSS의 시행을 늦춘다는 것임.
- 개선된 OSS 플랫폼은 일자리 창출 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사업 인허가 절차보다도 더욱 간소화되는 법안 내용을 시스템에 담고 있음. 허가와 관련하여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실행하며, 중소기업들도 자체적인 등록 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OSS 플랫폼은 재무부의 국세 당국이 운영하는 세무 시스템과 결합하여서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중소기업 소유자들이 세금 납세 번호를 연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인니정부, 2022년 1분기까지 집단 면역 달성 목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가속화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함.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닌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여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성장률을 더욱 끌어 올리겠다고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대규모 백신 접종 진행을 통해서 2022년 1분기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백신접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 2022년 1분기까지 집단 면역 달성함으로써 사회 및 경제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고 하는 것임. 정부는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도 말하였음.
- 사회 및 경제 회복 노력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구조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음. 인도네시아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 경제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조치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개혁 조치인 일자리 창출 법안의 진행, 기초 인프라 및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 기술 숙련도의 증진 조치 등을 언급하였음. 그 외에도 생산 효율성 증대와 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숙련도 증진도 요청하고 있음.
- 재무 장관은 개혁 정책들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재무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인구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역할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에 중요하다고 하였음



2022년 투자 달성 목표 1,200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투자부에 2022년 투자 유치 목표를 당초보다 30% 높은 1,200조 루피아까지의 상향을 요청하였음. 이를 위해서 투자부에서는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 산업들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높임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였음.

- 투자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2022년 투자 달성 목표를 1,200조 루피아로 상향시킬 것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음. 2022년 당초 투자 유치 목표는 985조 루피아였고 최대 1,127조 루피아 정도를 목표로 삼았었지만, 대통령이 1,200조 루피아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장관은 의회에서 말하였음.
- 새로운 목표 수준은 올해의 목표 수준인 900조 루피아보다도 30% 증가시킨 것이며, 올해의 목표 수준 900조 루피아도 당초 2020~2024 투자부가 잡아둔 올해의 전략적 목표 수준인 858.5조 루피아보다도 높은 것임. 장관은 이렇게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요청하였음.
- 올해 1분기에는 연간 투자 목표 900조 루피아 가운데 219.7조 루피아가 실현되었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 흐름은 개선되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코로나19 와중에서도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들이 자바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투자부가 지역별로 투자 부문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음.
- 예를 들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에서는 배터리 산업용 니켈 산업과 어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것이지만, 파푸아 지역에서는 비료 관련 산업에 집중을, 서부 파푸아 지역에서는 제련소와 플랜테이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칼리만탄 지역은 보크사이트와 관련한 하류 부문과 석탄 가스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팜오일, 제지 및 펄프, 고무, 타이어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갈 계획임. 자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기준에 있는 산업들 간에 협력 사업들을 늘릴 것이며, 중부 자바지역의 Batang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전구체와 음극재와 관련한 차량용 배터리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하였음. 발리와 Nusa Tenggara 지역은 여행 및 노령층을 위한 보건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중앙은행, 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지방정부들까지도 충분한 유동성을 누릴 수 있도록 완화정책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GDP의 5.06%에 달하는 781.29조 루피아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을 실시하여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말하였음.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 유동성 공급은 RP를 통해 은행들과 중앙은행 사이에 유동성 공개조작의 방식으로 실행되었음.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자금 중개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완화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유동성 완화 이외에도 중앙은행은 2020년 이래로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춰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6번 인하한 3.5%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중앙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유동성 완화 환경을 흔들리지 않게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화 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와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언제쯤 긴축으로 전환될지에 대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유동성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는 시기에 가서야 긴축으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2021년 중에 긴축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음.



중앙은행, 국내외 경제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경제가 미국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1분기 수출, 투자 등의 부문에서의 개선세가 2분기 이후로도 이어질 것이며, 소비자심리가 반등한 것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 부문인 소비도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평가하였음.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언론 담당 임원은 글로벌 경제와 인도네시아 경제가 모두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글로벌 측면에서는 여러 선행 지표들이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역 규모나 원자재가격, 수출입 성과 등이 일단 긍정적인 대외부문의 회복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였음.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이 사회의 이동지수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라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음.
- ▶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기대지수는 확장세로 전환되었으며, 3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대비 6.1% 증가를 기록하면서 2월에는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흐름에서 +로 전환되었음. 올해 1분기에는 GDP성장률이 전년대비 -0.74%를 기록하면서 4분기의 -2.19%보다 개선되었는데 무엇보다 수출 성과가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들의 경제 개선에 힘입어 개선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고, 거기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자극하고, 건설부문 제외 투자 부문의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 중앙은행은 국내 경제가 2분기부터는 +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선행 지표들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매판매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부문의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음.
- ▶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부터 이어지는 수출 증가와 건설 이외 부문의 투자가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 산업별로 봤을 때는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등의 부문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았음.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 기존에 중앙은행이 4월에 예측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간 성장률은 4.1~5.1% 수준 범위의 성장 회복 흐름 전망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 경제 회복의 지속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가속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둔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한다면 경제의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음.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재무부 등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 Antara News)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무역 관계 증진을 위해 러시아 방문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6월 초에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들과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비전통적인 무역 상대방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비전통적인 수출 대상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요청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로 향했음. 무역부 장관은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회원국들과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관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로의 수출을 늘리고, 러시아로부터의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무역부 장관은 말하였음.
-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에 무역부 장관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EAEU 회원국들과의 1대 1, 다자간 대화 등을 통해서 무역 협력 기회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임.
- 코로나19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역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굴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비전통 수출 국가와의 협력이 인도네시아산 제품들이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2020년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무역 규모는 19.3억 달러 수준으로 인도네시아가 1천만 달러 수준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규모는 9.7억 달러 수준이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9.6억 달러 수준임.
- 인도네시아가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것들은 팜오일, 천연고무, 카카오 등이며,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것은 반가공 철강, 석탄, 비료 등이 있음.
-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무역부 장관은 제 24차 세인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포럼(SPIEF)에 참여할 예정으로 여기서 EAEU-ASEAN 사업 협력 대화를 진행할 예정임. 이후 무역부 장관은 World Exp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Driver of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키노트 연설을 진행할 예정임.